

'2010 농업인 비용절감 「농약의 올바른 사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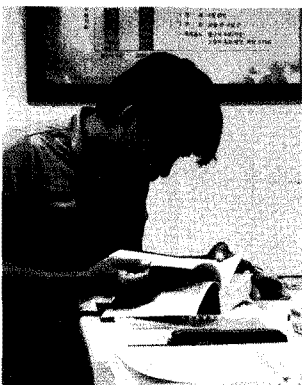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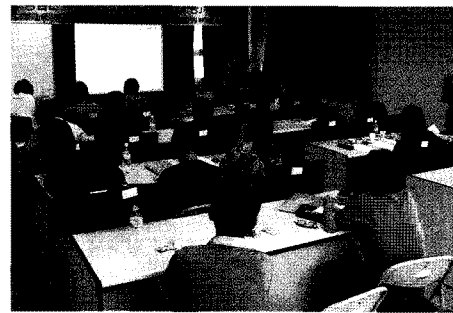
농약의 적절량 사용 · 올바른 혼용 생산비 경감에 큰 도움될 터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충남농업기술원 부여토마토시험장(장장 최종진)에서 '2010 농업인 비용절감 「농약의 올바른 사용」 교육'을 충남 부여지역 토마토연구회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최근 농가 생산경영비 상승은 일시적 현상 아닌 중장기적, 구조적 현상임을 인지,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절감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농약의 올바른 사용」교육을 기획,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

제1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농업인이 농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정확한 병해충(잡초) 진단으로 해당등록약제 선택, 표준약량을 지킨 약제살포, 올바른 혼용 및 안전사용기준 준수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 근절과 약해 사고 및 부적합 농산물을 줄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부정·불량농약 사용금지과 보호장비의 착용으로 작업자 중독사고 예방과 농약보관함 설치 및 농약빈용기 수거에 대한 캠페인성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에 앞서 한국작물보호협회 조상학 상무이사는 “소비자들은 우리 농업인이 소중히 재배한 농작물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라며 “우리 농산물의 올바른 소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인 대상의 ‘농약의 올바른 사용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병해충 정확한 진단 및 적용약제 선택 할 터

교육 첫날 8일에는 부여토마토시험장 이문행 박사가 「토마토 병해충진단」에 대해, 동방아그로 안영근 과장의 「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한국식물환경연구소 박지성 대표의 「올바른 방제기구 선택과 살포요령」 및 부여토마토시험장 이환구 박사의 「토마토 시설재배기술」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배불뚝이 농원’을 운영하는 최종길씨(43·부여군 규암면)는 “시판상이 추천해 주면 어떤 제품을 빼고 사용할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된 것이 큰 수확”이라면서 “특히 라벨을 꼼꼼히 읽고 농약지침서를 잘 활용, 병해충에 맞는 적용 약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이론과 현장실습이 병행된 이튿날 9일 교육에는 한국작물보호협회 조성필 기획홍보부장의 「농약의 안전사용 및 안전관리요령」강의 및 교육생들과의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후 오후시간에는 양이틀간의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충남 논산시



에 시설내온도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선도우수농가를 방문하는 현장실습교육이 있었다. 임명도(59. 충남 논산시 노성면)농가에서는 시설내 고온관리를 위한 '저압분무노즐에어포크 장치'와, 이재광(50. 충남 논산시 상월면)농가에서는 시설내 저온을 관리할 수 있는 '할로겐램장치'에 대해 설치성공사례와 교육생들에게 토마토 생산물을 높일수 있는 시설내 온도관리 노하우 전달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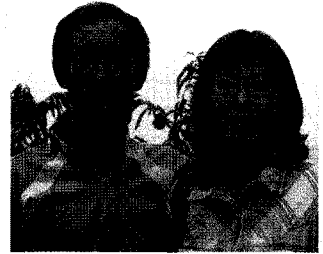
한국작물보호협회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유대증진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보다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Y

미니인터뷰

백호 · 김은선 영농부부(부여군 구룡면 죽절리)

- 이번 교육의 목적은 농약의 올바른 사용으로 농가 생산 경영비 절감에 있습니다. 교육후 영농에 접목시켜 도움 되실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농업인 교육을 받아보았지만 이번처럼 농약의 올바른 사용 및 안전관리요령에 대해 자세하고 유익한 교육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농약판매상의 추천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농약을 사용하다보니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병해충진단으로 농약의 적정량 사용과 올바른 혼용을 하여 농가 생산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오늘 부부가 함께 비용절감 교육 받으셨는데 서로에게 농가 경영의 동반자 역할로서 이로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10,000㎡의 토마토 재배면적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규모이지만 결코 혼자서 일구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격려해야만 값진 소득을 얻을수 있습니다. 교육참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교육참여는 일방적인 전달뿐입니다. 하지만 함께 교육을 받으면 교육후 우리 재배환경에 접목시킬 부분을 서로 논의하고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집은 아내가 오히려 학구열이 높아 아내는 이미 작년에 굿뜨래농업대학 2기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올해 3기로 입학했으니 후배가 된셈입니다.